

대구광역시

계명문화대, 혁신지원사업 전국 최고다

교육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계명문화대의 혁신지원사업이 전국 최
를 자랑한다.

계명문화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연차평가에서 대학-지역사회 상생 발전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평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계명문화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전문대학 활성화)의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지자체와 산업체와의 협업 및 소통,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성과관리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과 계획을 수립, 대학-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계명문화대는 지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전문대학 활성화)에 선정돼 12억 9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니어라이프케어 역할을 지닌 정주형 간호·보건·안전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함께 우수성과를 창출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계명문화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대학간 거버넌스 구축이 우수하다.

무엇보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 소통과 협업으로 공동의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지역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적 우수와 자체평가위원회를 포함한 6개의 위원회와 IR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성했다.

이 결과 운영한 실적이 우수 평가를 받는 등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성과관리 영역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박승호 총장은 "이번 평가결과와 함께 지역의 현안에 기반한 수요를 중심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해 특색화 전략을 도출, 이를 2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 특화 분야 및 정주형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자체와 산업계,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대학-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계명문화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연차평가에서도 정량평가 3개 영역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HiVE 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학 혁신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및 지역 정주형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성용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1일 박소영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 출근길 갑질 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사진=경북도제공>

여기는 갑질 청정지역, 경북도입니다!

이철우, 노동조합과 함께
갑질 예방 계몽운동 앞장

경북도는 1일 "갑질 없는 경북! 갑절로 행복한 경북!"이라는 구호를 걸고 이철우 경북지사, 박소영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출근길 갑질 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갑질을 예방하고, 모든 직원이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을 위해 마련했다. 출근길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해 비인격적 대우 OUT, 부적절한 지시 OUT, 모임 참여 강요 OUT 등 7대 실천 과제*를 적극 알렸다.

이 지사와 박 위원장은 갑질 예방 리플릿, 갑질예방 7대 과제가 새겨진 사무용 자석 등을 출근길 직원들에게 직접 나눠 주며 동참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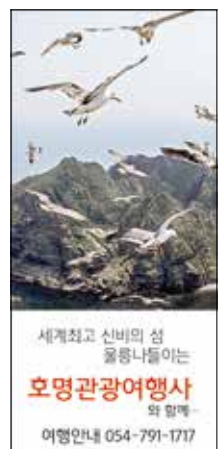
이철우 지사는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을 잘하면, 출근하고 싶어지는 직장이 될 수 있다"면서 "나부터 갑질 청정지역, 경상북도 만들는데 앞장서겠다. 고위직부터 술

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영 위원장은 "항상 내 옆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갑질상담 안심도무사 위촉, 심의위원회 설치 등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10대 우수 사례로 선정, 갑질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 단체장 일정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일 오전 본청 응비관에서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일 오후 강정보 디아크 주차장에서 열리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기념식에 참석한다.

경북교육청, 학교급식실 대전환...

10억 원 예산 전격 투입
공유형 튀김 전용실 운영

이번 2학기부터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경북교육청은 1일,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실에 협동 로봇을 활용한 공유형 튀김 전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튀김 전용실은 조리실 외부공간에 별도로 마련되며 환기시설이 보강돼 튀김 조리 때 나오는 유독 증기를 크게 줄인다.

교육청은 인근 학교가 튀김 조리를 요청하면 중심학교가 전용실에서 조리 완료 후 인근 학교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구미산동고와 경산고에 구축 예정인 튀김 전용실은 이 달 제안공모를 거쳐 협동 로봇을 선정하고 시설을 구축해 2학기부터 사용에 들어간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포항고 조리실

에 튀김 조리용 로봇을 설치해 현장적용을 거뒀다.

지난달 25일에는 이곳에서 시범학교인 구미산동고와 경산고 관계자, 포항 및 구미 지역 급식 담당과 시설 담당, 교육안전과 산업안전담당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튀김 로봇운영 협의회를 가졌다.

포항고에 처음 도입된 튀김 로봇은 급식 종사자가 태블릿의 메뉴를 터치하면 로봇이 바스켓에 담긴 식재료를 균일한 온도에서 조리해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원들이 튀김 조리 때 유증기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줄이고, 고온다습한 튀김솥 앞에서 기름을 털고 옮기는 작업과 같은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해 급식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조리 로봇 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2학기에 구미 봉곡초와 경산 하양초 급식실에 푸드스캐너를 시범 도입한다.

66년만에 바꿨다, 화성산업→HS화성...

회사 지향 미션과 사업
영역 역동적으로 담아



화성산업이 'HS화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1958년 창업 이후 66년간 사용된 화성산업 이름과 비둘기 로고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회사 측은 HS화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기업 가치체계 재정비와 함께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사명 변경은 이종원 회장 취임 2년여만에 이뤄졌다.

'HS화성'은 종전 화성산업의 헤리티지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되 영문표기를 통해 글

로벌 지향점을 담아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나타냈다. 'HS'는 화성의 영문 이니셜인 동시에 'Human Sustainability'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철근을 굵게 형성화 해 극대화한 'HS' 디자인은 건설 디벨로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단단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해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회사의 규모감과 신뢰감을 강력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다.

'H'는 유연하게 늘어나는 괄호처럼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컨텍스트를 포괄해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과 사업 영역들을 역동적으로 담아냈다.

화성의 오랜 시각적 자산인 레드 컬러를 'Heritage Red'로 명명해 계승하고 미래 혁신을 의미하는 'Innovation Navy'와 함께 기업의 인상을 한층 무게감 있고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한다. 사명선포식에서 HS화성은 '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만들다)라는 새로운 미션을 선포한다.

창의·혁신·조화라는 3가지 공유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와 고객에게 끊임 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창조 기업 'Global Value Creator'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원 HS화성 대표이사 회장은 "신규 사명을 통해 우리 회사의 지난 역사와 빛나는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건설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며 "역외사업 및 환경사업 등 신규 시장에 과감히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Gyeongbuk-do Culture & Tourism Organization
모두가 이 되는 행복한 정원
경주엑스포대공원 GYEONGJU EXPO GRAND PARK



아진P&P, 달성군에 라면 60박스 기부

지난달 28일 아진P&P에서 유가음 행정복지 센터에 라면 60박스(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아진P&P는 달성군 유가음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골판지-제지-포장 전문기업으로, 유가

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2년부터 매 분기 라면 60박스(100만 원 상당)를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진P&P 대표 정연욱은 “유가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유가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작은 기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사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최재훈 달성군수,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대신 현장으로...

재난 취약지역방문 현장중심 행정으로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식 없이 관내 어린이집과 집중호우 대비 재난취약지역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나갔다.

이날 오전, 최 군수는 구지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등원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보육현장을 살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국정방향 중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군정을 이끌어온 만큼, 민선 8기 전반기를 되돌아보고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의례적인 기념행사 대신 어린이집 방문으로 민선 8기 3년 차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에는 관내 급경사지 중 한 곳인 화원읍 명곡리~옥포읍 반송리 일원 도로를 방문해 우기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살펴본 최 군수는 집중호우를 대비

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군수는 “지난 2년간 달성은 유례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놀라운 경쟁력과 가능성을 전국에 보여주었다”며 “이 모든 것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27만 군민들과 저를 믿고 함께 달려와준 직원들 덕분이다. 남은 2년도 오로지 달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달성군은 달성교육재단 출범,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영아교사 전담배치, 대구시 최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과 교육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초저출산 시대에도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및 대구 농수산 물도매시장 유치 등 연이어 대형사업 유치에 성공하고 지난 6월에는 대구 국가산단이 기화발전 특구로도 지정되며 대구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다. 조여은 기자



김대권 수성구청장, '장마철 수해위험지역' 현장점검 나서

민선 8기 2주년 기념식 대신 수해 위험지역 살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별도 기념행사 없이 정례회 참석 후 장마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우가 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범어천-신천 합류 지점인 중앙고 앞 배신교 재가설 공사 현장, 매호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수해 위험지역을 살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산 성동 지역 응급 복구지 공사 현장도 집중 점검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극한 강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수성구는 5월 17일 수성경찰서, 수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선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인 업무로 지나친 정도로 철저한 대비만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구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올 하반기 기초 지자체 최초의 건축·조경 비엔날레인 '수성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건축가를 공공건축에 참여시켜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해 미래도시를 향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조미경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 민선8기 군수 취임 2주년 및 대구 편입 1주년 기념식

반환점 맞은 군위군수 전반기 성과·미래 비전 제시 군위군, 변화·혁신·소통으로 대구 굴기의 선봉장 될 것



군위군은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선 8기 군수 취임 2주년 및 대구 편입 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선 8기 김진열 군위군수의 취임 2주년이기도 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첫돌을 맞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함께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대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출향인사, 주요 기관·단체장 등 500명이 참석해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은 영상메시지로 군위군민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은 △군정 홍보영상 시청 △기념사와 축사 △군민 희망 메시지 상영 △대구편입 1주년 기념 퍼포먼스 △식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군민 희망메시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군위군을 응원하고 각 기 바라는 점을 영상에 담았다.

대구편입 1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에서는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계획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념식의 화려함을 더했다.

이어 “군민이 묻고 군위가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참석한 주민의 질문에 대해 김진열 군위군수가 직접 답하며 내용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솔직하고 담백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지난 2년간 늘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다양한 성과와 군위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도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군위군을 대구 굴기의 선봉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중구청,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신천둔치 진출입로 신천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점검

중구청은 1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천둔치 진출입로, 신천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관련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황보란 부구청장이 직접 나서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구는 지난 6월 신천 범람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둔치 진출입로 14개소에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 이번 점검에 나선 신천교 배수펌프장은 신천 지하차도의 배수를 책임지는 시설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펌프 가동현황 및 비상대응절차 등을 점검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관련 시설도 꼼꼼히 점검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국내 최초 하천 내 '파도풀유수풀, 가족풀' 특색있는 도심 속 자연친화 물놀이공간 조성



대구시는 1일 신천 대봉교 좌안 상류 둔지에서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공사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행복진흥원,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에게 교통비 2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2000매 지원

대구시행복진흥원(이하 대구 행복진흥원)은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교통비 2억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교통복지사업 '다함께 대구'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문화,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교육감, 조재구 남구청장, 관련 유관기관장, 공사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 남구 이천동 대봉교역 동남측 신천 둔치 약 9267㎡ 구간에 조성된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은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도심 중앙 신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2023년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1년여간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신천에 설치된 이동형 임시 물놀이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이 좋았으나 매년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고정식으로 조성된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및 눈놀이터, 봄·가을에는 계절 꽃 전시 및 야외 영화상영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최초 하천 내 설치되는 파도풀

(A=600㎡)은 최대 파고 1.2m까지 파도를 만들 수 있어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유수풀(A=517㎡), 가족풀(A=458㎡), 어린이 물놀이기구 7종 등이 설치됐다.

또한 일일 최대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면적(A=9,267㎡)에는 대나무 1160주, 사철나무 2329주, 소나무 900여 그루가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신천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은 기존의 생활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획일화된 하천 치수를 위한 공간이 아닌 도심하천 친수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며 “자연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도심 속 사계절 물놀이장으로 대구의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청년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교통복지사업 '다함께 대구'는 대구시·(주)IM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수수금을 활용한 대구시민 복지 증진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복지사업을 행복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9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6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소방, 자살위기 현장대응 전문가로 거듭나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구미소방서 대회 의실에서 도내 구조·구급대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 자살시도자 대응 및 대국민 친절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자살시도자의 심리상

태를 설명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자살 위기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현장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대원은 "자살 위기 현장에 출

동했던 사례를 떠올리며 실제 현장에서의 자살 시도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 이후에는 현장 대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 응대 시 대화 요령과 마인드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경북 육성 포도 품종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루비스위트 포도 수출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경북농업기술원은 1일 상주시 모서면에서 수확기가 빠르며 당도가 높은 진적색 포도 '루비스위트' 품종의 태국 수출을 시작으로 경북 포도 신품종 수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북 육성 포도 품종 레드클라렛의 해

외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올해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6월 말부터 수확되는 '루비스위트'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글로리스타', '레드클라렛' 등 경북 포도 주요 품종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전국 재배면적(전국의 56%, 8204ha)과 수출액(전국의 79%, 35,402천\$) 1위의 포도 주산지이지만 수출 품종으로 일본 품종인 사인머스켓이 90%로 집중돼 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산인머스켓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우려가 예상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다양한 색상, 맛, 향 및 식감을 가진 수출상대국 맞춤형 품종 개발에 집중해 왔다. 수출하는 포도 '루비스위트'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진분은색을 가진 품종으로 당도가 18. Brix에 이르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루비스위트 품종을 시작으로 향기가 좋은 골드스위트(녹황색), 당도가 높고 맛있는 적색 포도 레드클라렛, 사과맛이 나는 캔디클라렛(주황색), 대과립 글로리스타(적색) 등 다양한 우수 품종을 2026년까지 구미, 영천, 상주 등 포도 수출 시범단지를 비롯한 도내 500ha에 보급하고 경북 육성 포도 품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포도 신품종을 육성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판매 생산자의 품종 특성을 홍보하면서 올해도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생산자, 포도수출농업기술원, 한국포도수출연합(주), 경북통상(주)과 협력을 강화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재배 컨설팅과 신품종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파리올림픽... 경북 출신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선수들 사기 진작 기량 향상 파리올림픽 향한 힘찬 여정

경북도는 1일 경북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4년 파리올림픽 참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경북 출신(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 격려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속에서도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도 출신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올림픽 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촌을 방문한 경북도, 경북도체육회 격려

단은 도착 후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훈련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선수단과 선수촌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선수들의 훈련 상황 등 훈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선수 중 금메달 유망주로는 지난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유도 허미미(경북체육회) 선수, 한국신기록 보유자 수영 김서영(경북도청) 선수, 2023 한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양궁 김제덕(예천군청) 선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체조, 수영, 유도 등에서 예상치 못한 금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박창배 경북도 체육진흥과장은 선수단과 합

계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여정 하나하나가 경북과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가 될 것이다"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며, 206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2개 종목에서 총 329개의 경기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15개 종목에 11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경북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단은 수영, 유도, 양궁, 체조에서 각각 6명의 선수와 수영, 유도, 자전거에서 4명의 지도자로 구성, 파리올림픽을 향한 힘찬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 앞장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 7월부터 시행

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 관련 개선에 이어 일반 물품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운영 등이다.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은 2011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한다.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2021년부터 '100만 원 이상 타 시도 업체 물품구매 시 사유서 첨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서 작성은 일정한 서식 없이 업무 담당자의 자술에 맡겨져 있어 지역업체 물품 이용 유도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선을 위해 표준 서식을 마련, 기관(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1인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제3차 단계 계약 물품) 구매에도 적용하는 등 사유서 첨부 제도를 강화했다.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 공급자제 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한다. 제한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지역제한 준수, 중증 장애인생산물 구매 시에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교육재정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제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민생경제 회복 도민 복리증진 위해 노력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2년 7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이춘우 위원장(영천), 최병근 부위원장(김천), 김대진 의원(안동), 김진엽 의원(포항), 김창혁 의원(구미), 박성만 의원(영주), 박용선 의원(포항), 이선희 의원(청도), 이형식 의원(예천), 최병준 의원(경주) 등 10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347회 정례회까지 2년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전체 103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78개를 처리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전통시장·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 하고 도정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8개 소관 실국 및 8개 출자·출연 기관 등 도정 핵심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기

획경제위원회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기업 투자유치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도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iM뱅크, 방학 시즌 카드 해외결제 캐시백 행사

iM뱅크 BC카드 해외 결제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

iM뱅크는 휴가와 방학 시즌, 해외 여행객 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결제 시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이 있는 'iM 트래블러(traveler)' 행사를 한다. 1-8월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iM뱅크 BC(개인체크/신용)카드 이용 고객 중 Master카드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기간 중 해외 결제를 할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준다. 해당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iM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페이브/ISP 마이테그 후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 금액은 5만원이다. 캐시백 지급은 이벤트 종료 후 고객별 9월 또는 10월 결제일에 합산된 캐시백 금액이 결제 계좌에 캐시백 된다. iM 트래블러(traveler)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M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여름 기간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요에 맞춘 이벤트에 여행의 기쁨과 함께 캐시백의 행운도 누리시길 바란다. 다양한 이용 고객의 사용처와 기간에 맞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iM뱅크 BC카드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제고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2일 화요일 4

예천군 제29대 강상기 부군수 취임

제29대 강상기 예천 부군수가 취임했다. 강상기 부군수는 울진군 출신으로 대구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지방고시6회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북도 산림비즈니스과, 정책기획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문화융성사업단장, 세정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20년 7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와 경북도 정책기획관, 경북연구원 파견근무를 거쳐 제29대 예천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강상기 부군수는 취임식 후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영천시의회 제9대 의장 김선태 선출

부의장 김종욱 선출...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사진은 영천시의회 9대 후반기 김선태(왼쪽) 의장과 김종욱 부의장

영천시의회는 1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김선태 의원(북안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부의장에 김종욱 의원(금호읍, 청동면, 신명면, 화산면, 대장면)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에서 김선태 시의원이 단독 출마해 재직의원 12명 중 10표로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도 단독 출마, 김종욱 시의원이 11표로 당선됐다.

김선태 신임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서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목소리까지 더 들으며 더 열심히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욱 신임 부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영천시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영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성료

지역경기 활성화 홍보 시너지 효과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대회는 지난달 22-29일까지 6일간 예천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대한양궁협회 주최 주관했다.

선수·임원 700명이 예천군을 방문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

경기종목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남·여 개인

전, 단체전, 거리별 경기가 공정하게 펼쳐졌다.

고등부 남자단체전은 광주가 1위, 대구 2위, 충북과 대전이 3위, 여자단체전은 대구 1위, 인천 2위, 전북과 서울이 3위를 차지했다.

남자대학부는 경기 1위, 충북 2위, 대구와 서울이 3위를 여자대학부는 서울 1위, 부산 2위, 경기와 전남이 3위를 했다.

남자일반부는 제주 1위, 경기 2위, 서울과 부산이 3위를 여자일반부는 대전 1위, 울산 2위, 제주와 인천이 3위를 차지했다.

혼성단체전은 고등부 대전 1위, 서울 2위, 대구와 충북이 3위를 대학부는 경기 1위, 대구 2위,

광주와 서울이 3위를 일반부는 광주와 예천군청 양궁선수단 장지호 선수와 강고은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고등부 김태서, 신서빈, 대학부 이승욱, 오예진, 일반부 오진혁, 임하나 선수들이 영광의 1위를 차지하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각종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해준 선수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상승 의장 배성도 부의장 당선 군민과 함께하는 칠곡의회 건설

칠곡군의회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장 투표를 했다.

후반기 의장에는 이상승(사진 좌) 군의원, 부의장으로 배성도(사진 우) 군의원이 선출됐다.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이상승 신임의장은 당선소감으로 "칠곡군의회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의 통용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성도 부의장 역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신임의장과 뜻을 모아 소통에 앞장서고, 군민들과 함께하는 칠곡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군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투표를 진행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조미경 기자

상주시, 토착미생물 연구성과국제학술대회 참석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구축 활용

상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상주시 토착미생물 분리'와 '기능성미생물 SJ07 균주 특성 및 효과' 두 가지 주제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농업미생물은 균주에 따라 작물생육 촉진, 병해충방제, 환경스트레스 저감, 생산량 증대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양이나 생물체에 서식하는 토착미생물은 높은 적응성과 다기능성으로 농업적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현재 농업미생물관에서 공급중인 3종균을 기능이 우수한 토착미생물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식물 근권토양, 열매, 초유 등에서 고초균(Bacillus subtilis) 4개, 효모균(Saccharomyces cerevisiae) 6개, 유산균(Lactocaseibacillus paracasei) 8개 균리를 완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작물 염류장애 피해 저감을 위해 최종 선발한 상주시 토착균주 SJ07이 다른 동일종에 비하여 고염류 환경에 적응성이 높고 염류스트레스를 받은 오이의 뿌리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면서 비료·화학농약 대안으로 미생물 활용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상주시 기술력으로 선발한 다양한 토착미생물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구축에 적극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함창읍, 제4회 고령가야 별빛축제&노래자랑

함창지역 순수예술단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소통·화합 기여...



'제4회 고령가야 별빛축제&노래자랑'이 아쉬움을 남기고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달 28일 함창전통시장에서 고령가야예술단 주관으로 열렸는데 각급 단체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함창고령가야예술단은 옛 고령가야곡의 중심지였던 함창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함창풍물단, 한울림난타, 고령가야소리합창단, 함창색소폰, 댄스스포츠 동호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함창지역 순수예술단으로 지역 공연문화를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는 주민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5개 예술단 공연과 작년도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장기 자랑 대상을 수상한 JOY 댄스팀 공연, 그리고 이안 색소폰 동호회, 문경 아리랑 고고장구팀 등이 참여,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소통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김용길 단장은 "예술단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에 많은 읍민들이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함창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 행사 시 다양한 예술공연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준하 함창읍장은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축제는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함창 문화·예술 발전에 또 하나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함창고령가야예술단의 향토 예술문화 발전과 활성화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경산시, 시정 발전 기여 시민 17명 표창

주택 화재 속... 두 아이 아이엄마 구한 의인 표창

경산시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 화재 속에서 일가족을 구한 이승주(53)씨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17명에 표

창을 수여했다.

의인 이승주 씨는 지난달 4일 저녁 남천면 신방리 마을 부근을 지나던 중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불길을 피해 주택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아이(7, 5)와 아이 엄마(41)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매년 어버이날 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 온 봉회식육식당 대표 황정혜(여·51) 씨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 1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조현일 시장은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오신 분들을 지원, 격려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칠곡보건소, 치매예방 기억성장학교 수료식

사회적 교류 기회 늘려 삶의 활력 되찾길 바래

칠곡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5일, 3월부터 진행한 기억성장학교(기억아장치매교실, 기억푸른인지기강교실, 기억강종예방교실)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기억성장학교 3개 교실에서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정상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인지강화활동(운동, 수공예, 목공예, 요리 등)과 지역은행과 연계한 보이스피싱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함께한 어

르신들의 추억을 기록한 동영상 시청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수고한 어르신들에게 수료증과 꽃화분을 수여했다.

참여한 어르신들 다함께 기타연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공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K씨는 "4개월동안 함께하면서 가족처럼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얻고 간다"라며 "집 밖으로 나와 활력을 얻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얻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칠곡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려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문경시, 트롯가요제 수상자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 대표축제 등 문경 홍보 역할 수행...

문경시는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수상자인 윤진우, 윤윤서, 경북도 무형유산 김선식 사기장을 문경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위촉식은 지난달 29일 이주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토요일 특이 문경 공연과 함께 진행됐다.

신한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 공연무대, 위촉패 수여, 기념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윤진우(서울 거주)씨는 지난 15일 제2회 문경트롯가요제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모인 12팀의 본선 진출자들 중

가수 김희재의 '잃어버린 정'을 노래하고 대상을 수상했다.

문경 점촌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트로트 셋발' 윤윤서양은 '용두산앨레지'를 열창, 인기상을 차지했다.

김선식 사기장은 문경 출신으로, 2019년 경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청화백자)으로 지정됐다.

200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부문 신지식인으로 선정, 2022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지역 명사에 오르기도 했다.

신한국문경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 문경시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제31회 경주시장배 시민축구대회 성료

제31회 경주시장배 시민축구대회가 지난 달 23일과 30일 양일간 축구공원 5·6구장 및 스마트에어돔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대회는 18개팀, 400여명의 지역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다져왔던 경기력을 확인하고 동호인 간 친목을 다졌다. 경기는 청년부(20~30대), 백호부(40대), 실버부(60대), 직장부로 총 4개부로 나눠 각

부별 예선전과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회 결과 청년부 우승은 청룡YB, 준우승은 원근FC가 차지했다. 백호부 우승은 원근FC, 준우승은 OB축구클럽이, 직장부 우승은 경주시청, 준우승은 무궁화축구단이 각각 차지했다.



한수원, 여름맞이 에너지팜 모바일 스탬프투어

과학기술 원리 익히고
관광 명소 돌아보며
푸짐한 기념품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1~10월 31일까지 한수원 '에너지팜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를 한다. 한수원 에너지팜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한수원 홍보관인 '에너지팜'을 둘러보며 전기 에너지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관광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맞이 행사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전국의 한수원 에너지팜 가운데 2곳 이상을 방문, 스탬프(방문 도장) 미션을 인증하면 된다. 한수원은 이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에너지팜은 경주 한수원 본사와 4개 원전본부(고리, 월성, 한울, 한빛), 2개 양수발전소(양양, 무주) 등 전국에 모두 7곳이 있다.



참여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에서 '스탬프투어'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에너지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방문하면 된다. 관광을 원하는 에너지팜을 찾아가면 앱에서 GPS가 위치를 인식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찍힌다. 김정호 한수원 홍보실장은 "에너지팜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통해 방향을 맞춘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수원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발본색원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행사물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운영으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한다.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확인 후 시정 조치한다. 지역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토함산자연휴양림' 시범 운영

토함산 자연휴양림 1객실
반려동물 동반 전용 객실

경주시가 토함산자연휴양림 1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전용 객실로 시범운영 한다. 최근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토함산자연휴양림은 기존 1객실(금속의집 8호, 23㎡)을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전용 객실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반려동물 동반 객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토함산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자연휴양림 객실 예약은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다만 예약 시 반려동물 등록 확인 및 광견병 등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 입장 등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산책 시 안전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 및 맹견(8종) 입장이 제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숙박인프라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여행을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으로 반려인들이 우리시에 많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으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 1262만 명을 차지했다. 이중 반려인의 53.2%는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것을 걱정하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최

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두빛나래'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 지난 5~6월까지 이뤄진 이번 봉사활동은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담장에서 이뤄졌다. 동국대학교 디자인미술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가 더해져, 마을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환경개선을 인근 주민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대상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7~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한다. 대상지역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성장 아동권리 증진

경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5월 27~6월 27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초등학교 12곳 63개반 학생 12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13명의 전문 강

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육을 했다. 교육은 '소중한 너와 나'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의 정의, 예방과 대처법, 처벌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다짐을 갖게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고 학교생활의 안정화 도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054)779-6177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배경혜 과장은



경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0~11월에는 대상을 확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학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앞장

경주시는 치매 친화적 사회조성에 동참하는 단체 4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은 구성

원들이 모두 치매서포터즈 교육을 받고 치매 친화적 사회조성과 치매안심가맹점 구축을 위해 동참하는 단체다.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주택관리공단

(주) 경주용강관리소, 예사랑노인복지센터이며, 치매안심가맹점은 귀빈미용실, 일진신발이다. 단체는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조기 검진 권유 △배회 어르신 발견·신고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계몽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해면, 상대산
환경정화 활동

영덕군 영해면 사회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지난달 27일 상대산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회원들은 상대산 등산로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건강과 힐링을 위해 조성한 황토길 맨발 걷기 시간에 흠뻑 젖어있는 침엽수 낙엽과 자갈, 나뭇가지 등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영해면 사회단체협의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송성호 영해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지역의 유서 깊은 명산인 상대산 황토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서 함께 노력한다"고 했다.



청송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참가자 중 2023 하반기 5% 이상 감축에 성공한 466세대에게 탄소중립포인트 800만원을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2023년 하반기에 청송군 2353세대가 감축에 도전, 약 1,053세대에서 감축을 성공했다.

전체 감축률은 19.3%로 약 16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얻었다.



영양군, 영양군수기
테니스 대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달 29일 영양군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제24회 영양군수기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영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 테니스협회가 주관했다.

대회는 영양군 내 6개 읍·면의 총 6개 팀 약 60명이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우승 입양면, 준우승 석보면, 공동3위 영양읍, 일일면이 차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육사 영산회상도·지장시왕도 보물 지정 고시

불교 회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
영덕군, 총 4건 국가지정 보유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莊陸寺)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됐다.

장육사는 한국 불교의 3대 화상으로 불리는 나옹왕사(懶翁王師, 1320~1376)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1989년 건칠관음보살좌상(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이 보물로 지정된 이래 35년 만에 3건의 보물을 소장하게 됐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범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지장시왕도는(地藏十王圖)는 지장보살과 시왕 등 총 31구의 존상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두 불화 모두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764년(영조 40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제작 화승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 원래의 봉안 사찰에서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유지·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두 불화는 한 사찰 내에서 각기 다른 화승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불사를 진행해 불교 회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장육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가 보물로 지정 고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장육사 영산회상도

그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고 숨어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추가 발굴해 영덕군의 전통문화를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최근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등록을 꾸준히 추진



장육사 지장시왕도

해 2021년 '영덕 고시마울' 국가민속문화유산과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 경북도 유형문화유산, 2022년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명승과 '영덕 무안 박씨 희암재사'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매년 2건 이상의 국가 또는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을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덕 토염'이 경북도 무형유산에, '영덕 동에고택'이 경북도 민속문화유산에 지정, 이번 2건의 보물 지정으로 총 4건의 국가지정 보물을 보유하게 됐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심사

재인증 후 지질공원 활용
관광 활성화 '전력 투구'

청송군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가 오는 4~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인증 현장심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난 재인증 시 권고된 사항 이행 여부와 그간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심사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를 대표,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단(일본 나카다 세츠야 박사, 말레이시아 타노 운자 박사)은 지난 재인증 시 권고된 "지질공원 가치성 증대, 지질공



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리 구조 강화" 등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필수 항목인 지질유산의 보존, 관리 구조, 교육 활동, 지질 관광, 지역 협력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심사단은 지난 재인증 이후 청송 세계지질공원 운영 노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주왕산, 백석탄, 신성리

공룡발자국 등과 지질공원 파트너 업체를 방문한다. 지난 재인증 시 호평을 받았던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 남관생물문화센터와 지질공원 협력학교인 파천초등학교를 방문, 시니어 및 지역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연한다.

재인증 여부는 현장심사 후 작성된 심사자들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GN(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그간 재인증 현장심사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다해왔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은 물론, 재인증 이후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친절 1위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민원서비스 향상 더욱 노력

영양군은 1일 정례회시 전화친절 모니터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4개 부서를 포상했다.

군은 23개 부서(의회사무과 제외)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전화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평가는 지난 5월 7~27일까지 21일간 민원인을 가장, 부서별 최소 5번 이상 전화했다.

조사항목은 맞이단계, 응대단계, 종료태도, 체감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군의 평가점수는 88.59점으로 우수한 수준이

며, 작년보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됐다는 조사기관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1위는 문화관광과(93.67점), 2위 보건소(92.77점), 3위 종합민원과(92.20), 4위 일월면(91.67)로 선정되었으며, 상장과 상금으로 우수부서를 격려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친절한 전화응대는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직원들이 친절환 전화응대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울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3명 선발

울진군은 2023 하반기 동안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13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재해재난사고 대응 △새로운 정책 발굴 부문에 대한 실적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낸 후보자를 군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실무심사·직원투표·군정기여도 평가로 구성된 1차 심사와 울진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공적사례는 △수소국가산업단지 업무 추진(수소국가산업추진단 이재영 주무관) △성류굴 관광지 활성화(문화관광과 문순성 팀장)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추진(복지정책과 유희경 주무관) △국가기관(국립) 유치(농정과 김형수 팀장) △공공서비스 및 민원 해소(도시새마을과 박호원 주무관) △소규모수도시설 업무 추진(맑은물사업소 노재국 주

무관, 김동희 주무관)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기획예산실 김광규 주무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추진(민원실 오영진 팀장)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재무과 김중희 주무관) △불법주정차 업무 추진(일자리경제과 지은주 주무관)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산림과 임준규 주무관) △하천준설 업무 추진(건설과 이현길 팀장) 등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및 포상금을 부여한다.

군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지금까지 총 28명을 선정·포상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자 과거적 인사상인 센터부여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소방서, 군민 생명 재산 지킨다

청송소방서는 지난 27일 대형 재난 대비 임무 숙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4 2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청송군 청송읍 주안산로 222에 위치한 청송 황금사과 미래관에서 했다.

이날 청송소방서와 청송군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약 104명의 인원과 32

청도금천고·동곡 스타디 카페'개관식

청도에 있는 금천고가 동곡스타디 카페(자기주도적 학습실) 개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 학교장의 기념사와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곡스타디 카페는 연면적 132㎡ 규모의 최신식 카페 형태로 경북도 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운문 지사의 지원을 받아 약 한 달간의 공사

대의 준비가 동원됐다.

훈련은 청송사과 미래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제단 임무별 역할을 점검 및 능동적인 훈련 메시지 처리 △단계별 대응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통제단 부활·단계별 임무수행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윤병문 기자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집중형 학습공간이 24석, 개방형 학습공간이 24석으로 모든 학생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업과 연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다양한 진로 특강과 대학 진학 자료를 통한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저녁 시간에 운영하는 교과 심화반(대입 준비반), k팝 댄스반, 밴드반, 드럼반, 연극반, 제과제빵반(요리반), 스포츠반 등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봉화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출국

봉화군은 지난 4월에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290명 중 26명이 1차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90일로서, 각 농가와 계약기간 동안 단 한명의 무단이탈자도 없이 성실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또한 오는 23일에도 47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출국할 예정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봉화군이 발급하는 재입국추천확인서를 통해 오는 8월에 재입국한다.

현재 봉화군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국외 지자체와 맺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MOU를 통해 상반기에만 468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와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91명이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도 재입국 근로자를 포함한 129명의 근로자 입국할 계획이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하반기 입국 예정인 근로자들과 더불어 기업입국한 5개월 체류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급변 수확철까지 농촌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의성새내기
행복충전소 입주자 모집

의성군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귀농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성새내기행복충전소'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영농 기술 습득과 정착 기반 탐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만경산길66 소재의 의성새내기행복충전소 28㎡형 2개소와 50㎡형 4개소로 나뉜다.

28㎡형 주거 공간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50㎡형은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6학년 이하)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귀농가정과 예비 귀농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행복의성지원센터의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 사업과 연계되어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 기간은 12개월 이하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박재성 기자

영주 민선 8기 2주년 '현장 소통 행보' 로 출발

박시장, '주요사업장 등 민생 현장' 방문 나서 '오직 영주, 오직 시민을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로'

박남서 영주시장은 1일 민선 8기 중책을 넘어가는 2주년을 맞아 민생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영주시장의

로 취임하며 품었던 초심을 되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생활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7월 직원 월례회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담은 기념사를 통해 "민선 8기 2주년은 영주시의 이정표를 세히 지역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시간"이라며, "영주시 시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

는지 꼼꼼히 살폈다. 오후에는 △장수면 갈산리 △영주시니어클럽 △희망나무 마을돌봄터 △노벨리스코리아(주) 영주공장을 방문해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노벨리스코리아(주) 영주공장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청년 근로자들이 영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하며 느꼈던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영주에 취업하며 정착했다는 한 청년 근로자는 "6년간 살면서 느낀 영주는 참 정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다. 그러나 높은 월세와 집값은 청년들이

정착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며 높은 주거비용을 안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노벨리스코리아 경영진과 함께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방안도 협의했다.

박남서 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이 행복할 도시 영주로 향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직 영주,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해 지역 현안을 풀고, 미래의 꿈을 열고 시민 행복을 높이는 데 하반기 시장도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접수 마감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신청자 접수를 최근 완료하고 입주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와 호실 추첨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행복 임대주택은 총 9세대(49.11㎡ 3세대, 42.51㎡ 6세대) 구성되어 있으며, 냉방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만원의 과격적인 임대 조건으로(보증금 88만원 별도) 최장 4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러한 고령군의 적극적 노력과 임대주택 사전 개방을 통한 입주 대상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 총 9가구(우선 공급 2, 일반공급 7)모집에 44명이 신청했다.

장애인,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의 우선공급은 3명, 일반공급은 41명이 지원해 6대 1에 근접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청자격을 고령군 거주 청년(18~45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즉시 전입이 가능한 외지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인근 지역 거주 청년들의 많은 문의와 관심을 이끌어내,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 실현에 대한 고령군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청년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제9대 성주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성주군의회는 1일, 제283회 성주군의회 임사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에 도희재 군의원, 부의장에 이화숙 군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재적의원 8명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 없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투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희재 신임 의장 당선인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성주군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당선 인사를 전했다.

이화숙 부의장 당선인은 "부의장이라는 직무에 있어 소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동료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했다. 도재훈 기자

성주군, '노래로 웃음 꽃피는 초전 만들기' 운영

성주군은 신바람 나는 초전면을 만들기 위해 1일부터 8월 1일까지 초전면 고산리 외 7개소에서 '노래로 웃음 꽃피는 초전 만들기'를 운영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노래로 웃음 꽃피는 초전 만들기는 주민 희망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위로 선정되어 노래 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라 마을별 총 5회 운영된다.

노래를 통해 우울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 간 어울림을 통해 심(心)신(身)의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재훈 기자

영천시, 민선 8기 3년 차 시작을 알리는 힘찬 걸음

각 분야 현장 찾아 시민과 소통 더 큰 영천 위해 지속적인 변화 강조

최기문 영천시장은 1일, 민선 8기 3년 차 첫날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취임 당시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더 넓은 시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길에 동행해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민선 8기 3년 차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를 찾아 어르신 복지과 영천시의 발전 방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제239회 영천시의회 임사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열린 첫 번째 마늘 경매, 조매식에 참석해 조매품 경

매를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5월 개소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입주 기업가들을 만나 청년 정책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다.

최기문 시장은 "처음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한분 한분의 말씀을 귀담아들었다"며,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오듯 크고 작은 변화를 지속해 더 큰 영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수출 계약 쾌거

대만 수출상담회까지 41건 1034만 \$ 계약체결

베트남을 넘어 대만을 방문한 영천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지난달 28일, 타이베이 수출상담회에서 대만 현지 바이어와의 일대일 맞춤 상담에서 25건 계약체결, 337만 달러(한화 약 46억 5천만)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귀국했다.

대만 타이베이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업체는 前일 베트남 체결 건의 기세에 힘입어 대만 현지 10

여명의 바이어들과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킴으로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천중소제품 인기몰이에 크게 한몫했다.

이로써, 5박 6일의 일정을 소화한 10개사, 22명으로 구성된 영천시 무역사절단의 첫 행보는 영천시-동남아 기관단체 간 5건의 MOU체결에 총 161건 상담, 총 3만6185만 달러 상담액, 총 1613만 달러 계약추진액 결과, 41건 MOU체결(기업체-동남아 BUYER간) 및 1034만 달러(한화 약 142억) 계약성사의 쾌거를 이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무역사절단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영천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다변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역사절단은 ㈜무계바이오, ㈜데이웰즈, ㈜비채, ㈜심박, ㈜시루와 방아, 경북햇살영농조합법인, 한조주식회사, ㈜동방제유, ㈜천연식품, ㈜정아냉동식품 등 업체가 참여했다. 최은하 기자

경북 최초, 영천마늘 첫 경매 시작

대서종 마늘 상품 1kg 4100원 낙찰

영천시는 1일 경북 최초로 운영하는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2024년산 햇마늘에 대한 첫 경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경매를 알리는 조매식 행사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김중욱 영천시의회 부의장, 이영우 시의원, 박성용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이구권 신녕농협장, 최진욱 (사)한국마늘가공협회장, 김상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장,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을 비롯해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 최초로 운영되는 마늘경매식집하장은 1일을 시작으로 8월 5일까지 주 6일(일요일 휴무) 운

영된다. 취급품목은 대서종 마늘만 취급하며, 하루 경매량 1일 최대 400톤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농가당 1일 300량/20kg까지로 물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영천마늘 유통구조는 관내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방식으로 대금 지급은 당초 매취에서 수탁으로 바뀌어 농가에 1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3번 지급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매식집하장이 개장되면서 수매계약물량 이외의 경매물량은 경매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마늘 마늘 유통구조를 당초 수매 100%에서 수매 50%, 경매 50%로 전환을 목표로 경매식집하장을 추진했고, 농협을 통한 수매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계약물량으로 산지폐기 및 출하물량 조절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매



를 통해서도 영천마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출하농가는 건조 및 선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출하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마늘경매식집하장 대서종 마늘경매는 13시 30분 기준 상품 최고가 41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영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영천마늘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등 마늘재배면적 1249ha, 생산량 2만6000톤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마늘 주산지다. 최은하 기자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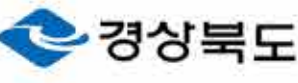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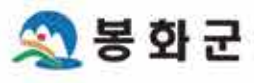
2024. 7. 27 **토** ~ 8.4 **일**
9일간

제26회 봉화 은어 축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주최/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Bongha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후원  경상북도  봉화군